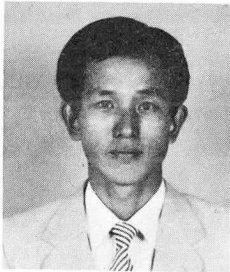


# 축산분뇨 처리정책



신 현 국

(환경청 생활폐기물과 계장)

정부는 90년도에는 양축농가의 정화시설 설치를 돕기 위해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촌지원금을, 환경청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기금과 국민투자기금을 활용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영세농가를 위해선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1. 머리말

'89년이 저물고 '90년 새해가 밝았다. '89년도는 축산인에게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 밖으로는 수입축산물 문제와 함께 안으로는 축산물 가격불안정과 더불어 폐수 정화시설 미설치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강화로 일부 축산인들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환경문제에서는 수도물의 오염문제로 나라 전체가 떠들석하였으며, 축산이 물오염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론의 화살을 받았던게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대상 시설에 대한 정화시설의 설치 유무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행된 한 해였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였으므로 축산인은 축산인대로, 정부당국은 당국대로 어려움을 겪었던게 사실이다. '90년 새해에는 당국은 당국대로, 양축농가는 양축농대로 자기 몫을 다하여 축산폐수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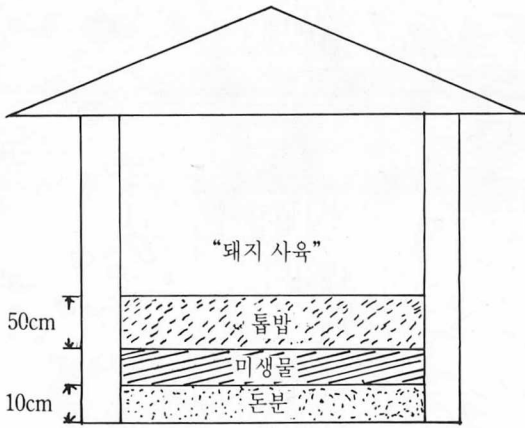
'90년도에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정부의 주요시책을 소개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이해를 돕고, 도움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드리게 됨을 참언한다.

### 2. 처리가 잘 되는 공법

양돈의 경우 발효돈사는 폐수가 전혀 발생치 아니하는 시설로서 적극 권장할 방법임.

'89년도에 경기도 관내 양돈시설 현장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규모가 큰 농장부터 소규모 시설까지 두루 둘러 보았다. 정화시설의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웠다. 폐기물 관리법 규제대상 양돈시설의 경우 정부에서 고시한 6가지 방법중 저장액비화 방법을 가장 많이 설치하였고, 비교적 잘 운영되었다. 최근에는 톱밥과 미생물 균주를 이용한 발효돈사법이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여

## '90년도 정부의 양돈정책을 알아본다.



〈그림1〉 발효돈사의 내부구조

러가지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폐수가 전혀 발생치 않고 냄새가 적게 나며, 돈사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권장할 만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발효돈사는 구라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톱밥과 미생물을 사용하여 돈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발효시키고, 발효된 분뇨의 일부를 돼지가 다시 먹기도 한다. 발효돈사의 내부구조를 간단히 도해하면 〈그림1〉과 같다.

발효돈사 방법의 문제점으로는 톱밥과 미생물 균주를 정기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미생물 균주는 대부분 특허로서 비용부담이 수반된다. 또한 기존 돈사를 개조하여야 하는 경우 천정이 낮은 경우는 바닥을 깊이 파내지 않으면 안된다. 아무튼 폐수가 전혀 발생치 않고 사료가 절감되는 발효돈사는 앞으로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또한 법적으로도 발효돈사시설은 인정되고 있다. 즉 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 농가에서 발효돈사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방지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아직 기술적으로 몇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운영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점을 양돈협회에서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효돈사방법의 장단점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표1〉 발효돈사의 장·단점

| 장 점   | 단 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수발생이 전혀 없음</li> <li>• 악취발생 감소</li> <li>• 폐기물의 자원화 도모 (퇴비화)</li> <li>• 사료비 절감</li> <li>• 운영관리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li> <li>- 폐수처리비</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시설 설치비가 다소 많이 소요</li> <li>• 톱밥과 미생물 균주를 정기적으로 공급하여야 함</li> </ul> |

※ 구라과, 일본, 대만 등에서는 기존 돈사를 발효돈사로 개조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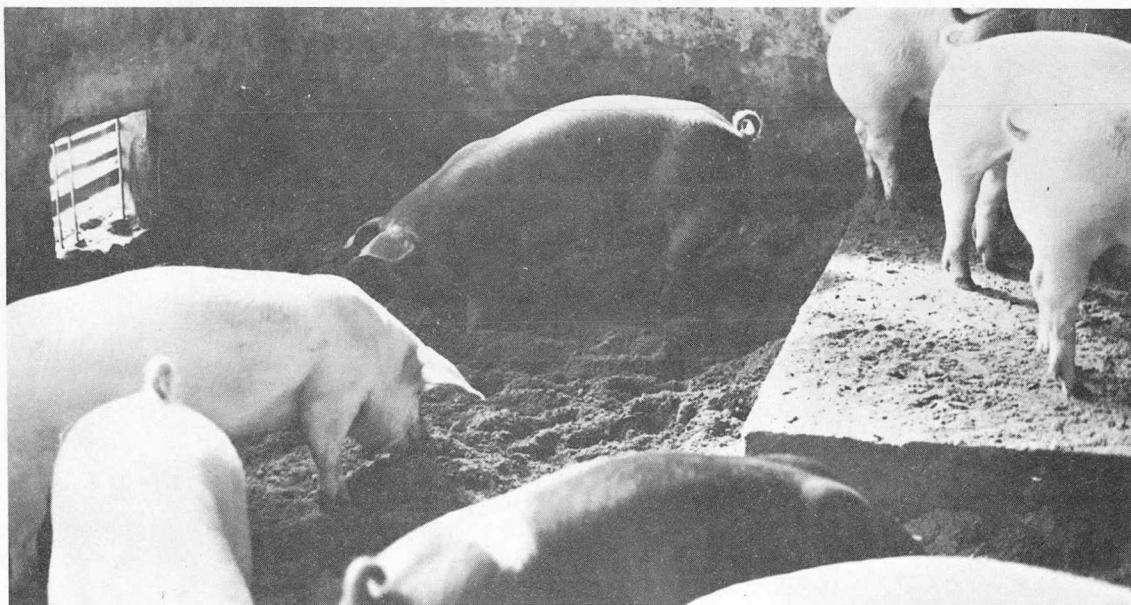
### 3. '90년도 축산분뇨 처리대책 방향

'90년도에는 축산분뇨 처리대책이 정착되고 자리잡는 한 해로 되었으면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 농가의 경우 '90년도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화시설을 설치한 농가에서는 운영관리에 신경을 기울여 기술 축적이 되는 한 해로 삼아야겠고, 아직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적인 시설을 조기에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기존돈사를 폐수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발효돈사로서의 개조도 한번쯤 고려해 볼만한 것이다. 법적인 규제대상이 아닌 양축농가에서도 이제는 축산분뇨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의 도시화와 함께 이제는 전주민이 환경감시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거처럼 환경오염을 덮어두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90년도에는 양축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재정적 지원은 농림수산부·환경청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90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촌지원금에서 일부 지원계획이 마련되었고, 환경청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오염방지기금과 국민투자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

## '90년도 정부의 양돈정책을 알아본다.



다.

아울러 규제대상 이하의 소규모 양축농가를 위한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문제도 검토중에 있으며, 우선 '90년부터 팔당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각 협회에서 좋은 방법들을 적극 홍보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발효돈사의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책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발효돈사에서는 정기적으로 톱밥과 미생물 균주를 공급하여야 하며, 특히 미생물 균주의 값싼 공급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협회 등을 통한 미생물 균주의 공급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90년도에는 기 설치한 시설들의 정상 운영 등을 기술적으로 정착시키고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겠다. 어떤 면에서는 시설의 설치 못지않게 운영관리가 까다롭다.

아무튼 '90년도는 정부당국, 협회, 양축농가가 삼위 일체가 되어 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 4. 맺음말

양축농가가 여타 농업문제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산적한 실정이다. 축산분뇨처리 문제도 그 중 하나이다. 이제까지는 정화시설의 설치는 오염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즉 정화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저절로 처리가 되고 축산분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비록 정화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90년도에는 정화시설을 설치한 농가에서는 시설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아직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농가에서는 시설설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규제대상 이하의 농가에서도 환경보전차원에서 점차 기존돈사를 발효돈사로 개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효돈사는 폐수가 전혀 발생치 않고 냄새도 적게 나며 운영관리도 편리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쪼록 '90년도에 정부, 협회, 양돈농가가 혼연일체가 되어 축산분뇨처리 문제가 해결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